

데이비드 L. 매튜슨 박사, 신약 신학, 5 차 세션 , 신약에서의 창조, 땅, 레크리에이션 , 2부

© 2024 Dave Mathew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신약 신학에 대한 강의 시리즈에서 데이브 매튜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5, 신약에서의 창조, 땅, 레크리에이션, 2부입니다.

우리는 땅, 창조, 새 창조 주제의 신약 발전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 서신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우리는 더 큰 텍스트들과 그것들이 창조, 특히 새 창조에 대해 말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지만, 언급할 몇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상속이라는 용어의 사용인데, 특히 바울 언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상속은 구약에서 땅을 상속받는 데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상속받거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상속을 받는다는 일관된 용례를 발견합니다. 콜로새서 1장 12절에서, 다시 콜로새서로 돌아가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행하신 일의 맥락에서,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부분을 살펴보기 바로 직전에, 그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고, 그는 첫 번째 창조를 담당하고 새 창조를 시작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12절에서 빛의 왕국에서 성도의 상속에 참여할 자격을 갖추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것은 또한 출애굽기 유형의 이미지를 활용하고, 이 구절과 다음 구절에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는데,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과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 전체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탈출로 그의 백성을 구속하시고 이제 그들을 그들의 상속 재산으로 인도하시는 구약성경 언어와 공명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상속 언어가 땅을 물리적으로 소유하는 것에 적용되지 않거나, 땅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우리가 가진 상속 재산, 즉 우리의 구원에 적용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나는 유일한 의미라고 말하고 싶지 않지만, 적어도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여기서 적어도 땅 소유의 영적인 측면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구원의 상속 재산이며, 그것이 가리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구원의 축복은 기대하고 가리키는 듯 보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성취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땅과 창조, 새 창조의 이미지는 물리적 측면과 영적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콜로새서 1:12뿐만 아니라 바울 문헌의 다른 여러 본문과 심지어 다른 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상속받는 구원에 적용된 땅을 상속받는 언어를 떠올리게 하는 상속 언어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한 본문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의 맥락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기독교인에게 적용되는 상속 언어를 발견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제 이것을 들어보세요.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께 속한다면, 당신은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의 씨와 상속자입니다. 상속자라는 언어와 아브라함과 관련된 약속을 주목하세요. 저는 그것이 땅도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을 상속받는다고 제안하는 듯합니다. 여기에는 땅도 포함됩니다. 다시 한번, 저는 그리스도인에게 현재의 형태로 구원과 새 창조, 부활, 생명의 축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래에 땅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을 상속받는 것은 예수가 1세기에 사역할 때부터 확장되어 모든 창조물을 포용할 땅이 이제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새 창조물을 상속받는 것으로 성취됩니다.

신약성서의 다른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바울 문헌의 다른 본문 몇 개를 지적하고, 그다음에는 요한 계시록, 특히 21장과 22장을 살펴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구절 중 하나는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인데, 바울은 모든 창조물이 죄에 복종된 상태에서 반전되어 미래에 구원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첫 번째 창조물이 죄에 복종된 것은 창세기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따라서 창조 언어가 더 많고,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성취되어 새롭게 회복된 창조물이 더 기대됩니다. 매우 흥미로운 본문 중 하나는 에베소서 2장 11절과 22절입니다.

저는 이 글을 전부 읽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미 몇 개를 읽었다고 생각합니다. 성전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에베소서 2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우리가 다룰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전에는 출생으로 이방인이었고 할례를 받은 자라고 자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라고 불리던 너희가 기억하라.

그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대조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손으로 몸에 행한 할례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의 시민권에서 제외되었으며,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약속의 언약에 낯선 사람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이 왔느니라. 이는 그가 친히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원수의 막 곧 분리하는 담을 헐어 그 육체 안에서 율법과 계명과 규례를 폐하셨음이니라. 그의 목적은 자기 안에서 둘로 한 새 사람을 창조하여 화평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이 한 몸으로 유대인과 헬라인 둘 다를 하나님께 화해시키려고 십자가로 그들의 적개심을 죽이셨느니라. 그는 오셔서 멀리 있는 너희에게 평화를 전파하셨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도 평화를 전파하셨느니라. 이는 그를 통하여 우리 둘 다 한 영으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음이니라.

이제, 제가 이것에 대해 말하고 싶은 것은 이 텍스트가 잠재되어 있으며, 특히 이사야서와 같은 구약성경을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앞선 구절들, 제가 읽은 첫 구절들, 특히 12절에서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고, 이스라엘의 시민권에서 제외되어 있고, 약속의 언약에 외국인이며,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지만, 이제 멀리 있는 여러분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 멀고 가까운 언어조차도 이사야서에서 바로 나왔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여기서 언급된 이 본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땅으로 회복되는 것을 다루는 본문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바울이 지금,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복음이 퍼져나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기 시작하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에 참여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속함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바라건대, 여러분은 이 많은 것에서 패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약속은 마치 지금, 갑자기 교회가 구약에서 한 약속을 성취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걸러집니다.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살펴본 거의 모든 것에서 구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것을 약속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그의 백성, 유대인과 이방인 안에서 성취를 찾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에서 잠깐 살펴본 갈라디아서 구절에 대해 더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갈라디아서 3장의 맨 끝에서 바울은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약속의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씨이고 약속의 상속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읽은 전부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을 앞서서 놓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함으로써입니다. 우리는 그 본문을 다시 살펴볼 것이지만, 요점은 이러한 약속들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그런 다음 우리는 말하자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께 속함으로써 그것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보는 땅의 약속들은 적어도 에베소서 2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 평화, 구원, 화해,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시는 아버지께로의 접근을 상속받음으로써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핵심 본문은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새 창조에 대한 언급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6장과 16장에서 저자는 17절과 18절과 같은 구약성경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인용합니다.

그러므로 16절을 뒤로 돌아가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사이에 무슨 일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 가운데서 걸을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리라.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딸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특히 16절에서, 나는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 가운데 걸을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은 실제로 구약성서 본문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아마도 두 개의 본문을 합친 것일 것입니다. 그 중 하나는 에스겔 37장인데, 여기에는 새 언약 공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구절에서 성전과 새 언약의 주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주목하세요. 하지만 우리는 주로 창조와 땅의 주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이 땅으로 회복되는 맥락에서 나온 또 다른 구약성경 본문을 인용할 수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그 축복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여기서 언급된 새 언약, 즉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언약의 언어이며, 나중에 다룰 주제입니다. 하지만 에스겔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땅으로 회복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바울이 팔레스타인 땅 너머로 확장되는 땅을 상상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땅이 가리키는 것, 즉 구원의 축복을 상속받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울의 서신을 제외하고도 신약의 나머지 부분에서도 창조, 새 창조, 또는 땅에 대한 수많은 암시나 언급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서신과 요한계시록 사이의 문헌에서 세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잠시 후에 다룰 것입니다. 나머지 신약성경에서 세 가지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이 글을 읽을 때, 저는 그저 새 창조 언어에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문맥을 조금 설명하기 위해 뒤로 물러나겠습니다. 17절: 모든 선하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는

것으로, 하늘의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데, 그는 움직이는 그림자처럼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기로 택하셨고, 우리는 그의 창조의 첫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바울은, 또는 야고보서의 저자는, 죄송합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구원이 거듭남, 새로운 탄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창조의 첫 열매 또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야고보가 여기서 의도적으로 새로운 창조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시 말해, 시작된 방식으로, 새로운 창조는 우리가 새로 태어났다는 사실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새 생명이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과 비슷할 수 있지만, 야고보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확실히 우리의 구원과 거듭남을 이해하고, 새 생명을 첫 열매, 새 창조의 시작으로 받습니다.

우리는 요한일서 2장에서 흥미로운 개념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새로운 창조의 반대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약에서 첫 번째 창조의 파멸이나 심판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도 발견합니다 .

요한일서 2:17. 다시 한 번, 뒤로 돌아가서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것은 윤리적 맥락에 놓여 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죄 많은 사람의 정욕과 눈의 정욕과 자기가 가진 것과 하는 것에 대한 자라는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서 온 것이니라.

세상과 그 욕망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자 요한이 구약에 대한 구체적인 암시를 의도했는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현재 세상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영원히 산다는 생각은 새로운 창조의 삶을 다시 한 번 반영하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공유할 수 있는 새로 창조된 질서의 삶을 준비하거나 대조적으로 일종의 감소와 해체를 겪고 있는 현재 창조와 대조됩니다. 땅 문제와 그 궁극적인 성취를 다루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흥미로운 구절 중 하나는 아마도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읽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4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과 4장은 저자의 경고 구절 중 일부입니다. 히브리서를 잘 알고 있다면 저자가 독자들에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약속하신 구원을 등지고 유대교의 옛 언약의 예배와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말입니다.

저자는 그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의 결과에 대해 거듭 경고합니다. 그 경고 중 하나는 3장과 4장에 있습니다. 3장과 4장에서 저자는 그 경고를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땅의 약속의 맥락에 둡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저자는 땅에서의 안식의 약속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실제로 구약성경에서 땅에서의 안식에 대한 약속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구절 중 몇 개만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내려가서 4장 몇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입니다.

듣고 반역한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모세가 이집트에서 인도해 낸 모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는 사십 년 동안 누구에게 노했습니까? 그것은 죄를 지은 자들, 사막에 몸이 쓰러진 자들에게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자들이 아니라면 누구에게 그들이 그의 안식에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맹세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해 들어갈 수 없었음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저자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데려온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 때문에 가지 않았다고 말하는

구약 역사의 일부입니다. 그들은 들어가기를 거부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나머지 땅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4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아직 남아 있으므로, 너희 중에 아무도 그 안식에 이르지 못한 자로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하자.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는 그들이 들은 메시지가 그들에게 가치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 그것을 들은 자들이 그것을 믿음과 결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믿는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나는 분노하여 맹세하였노라.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시편 95편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저자는 시편 95편에서 이 구절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위의 구절은 그들이 결코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6절. 어떤 사람들은 그 안식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복음을 전파받은 자들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시 어떤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 부르셨고 오랜 후에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오늘 내 음성을 들으면 마음을 굳게 하지 말라. 다시 한 번 시편 95편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8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후에 다른 날에 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안식의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누구든지 들어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안식이 하나님이 자기의 일에서 쉬신 것과 같이 자기의 일에서 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아무도 그들의 불순종의 본보기를 따라 넘어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저자는 구원을 찾을 수 있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제시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우선 히브리서 3장과 4장을 읽을 때 저자는 시편 95편으로 시작합니다.

시편 95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홍해와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까지 이르게 하신 사건이 있는 지 오랜 후에 쓰여졌지만, 그들은 반역했습니다. 이야기를 기억하신다면, 그들은 정탐꾼을 그 땅에 보냈고,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어가라고 약속하고 명령하셨지만, 그들은 믿기를 거부했고, 순종하기를 거부했으며,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시편 95편을 읽고 있는 저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머지 땅은 어느 정도 여전히 이용 가능해야 한다고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들이 정착했지만, 저자는 그들이 여전히 다가올 더 큰 안식을 기대했다고 말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 땅에서 그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 원래 세대는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의도하신 땅에서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저자가 이 안식을 창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을 주목하세요.

그러므로 나머지 땅은 여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편 95편의 저자는 구약성경을 읽고, 시편 95편을 읽고 훨씬 나중에, 왜 다윗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을 약속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저자는 시편 95편의 성취로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갈 수 있는 안식이 여전히 있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성취로, 창조의 안식과 안식의 안식,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에서의 안식조차도 여전히 더 큰 안식이 가능합니다.

4장 1절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아직 남아 있으므로, 여러분 중에 아무도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제 생각에는, 이것은 히브리서 3장 14절과 평행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굳게 잡고 처음에 가졌던 확신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독자들이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궁극적인 안식, 독자들이 부지런히 들어가 붙잡기를 바라는 궁극적인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가져오는 구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아마도 주로 종말론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안식에 부지런히 들어가는 것에 대해 말할 때, 이것은 주로 계시록 21장에서 읽은 것, 즉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새 창조와 삶을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확실히 시작된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의 궁극적인 현현에 앞서 지금 그것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과 4장의 증거를 요약하자면, 저자는 적어도 이 시점에서 구약에서 땅에서의 안식에 대한 약속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 안에 참여하는 구원에서 성취된다고 제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땅과 창조의 약속이 물리적 측면과 영적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물리적 현실이 없고 물리적 땅이나 창조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자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에 초점을 맞춘 것은 이 지점에서야 땅과 창조가 궁극적으로 땅의 약속이 가리키는 영적 현실을 가리키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성취를 찾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3장과 4장, 로마서 8장의 본문, 그리고 아마도 다른 몇 구절을 제외하고, 우리가 살펴본 신약 성경의 대부분 본문은 새 창조나 창조 또는 땅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이미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시작된 새 창조의 약속이 이제 성취되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약이 보통 이미 아직 긴장이 아닌 구조 안에서 이러한 주제를 전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을 통한

이러한 약속이 이제 개시된 형태로 성취된다는 사실이지만, 그것들은 최종적인 완성을 예상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계시록 21장과 22장으로 이끕니다. 이제, 우리가 신약에서 다룰 수 있는 다른 본문들이 있겠지만, 저는 몇몇 주요 본문들을 다루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매우, 매우 자주 돌아올 본문으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가 발전했거나 적어도 신약을 통해 발전하는 지배적인 주제를 촉발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과 22장은 그것들을 절정에 이르게 하고 의도한 목표와 결론으로 이끌어가는 듯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과 22장입니다. 이 구절에서 요한은 구원 역사의 궁극적인 목표인 새 창조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새 창조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궁극적인 목표의 절정이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의도, 그리고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모든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제 계시록 21장과 22장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렸듯이 여러 다른 맥락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를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은 계시록 4장과 5장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4장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찬양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것을 특히 찬송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4장이나 계시록의 어느 부분에서 시작되는 환상에 갇히게 되지만, 계시록에서 종종 말하는 연설이나 부르는 찬송가는 보통 환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해석하기 위한 것입니다. 4장의 맨 마지막에서 우리는 이 24장로와 네 생물에 대한 설명을 읽습니다. 저는 지금 그들이 누구이고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찾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입니다.

8절에서, 네 생물은 각각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고, 날개 아래에도 눈이 덮여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말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은 계셨고, 계시고,

오실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주권자, 전능하신 분으로 찬양받으십니다. 그는 모든 것과 관련하여 주권자이시고 영원하시며, 계셨고, 계시고, 오실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 영원무궁토록 사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마다 24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무궁토록 사시는 분께 경배합니다. 그들은 보좌 앞에 면류관을 엮고 11절에서 “우리 주 하나님이지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오니이다.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의 뜻으로 만물이 창조되었고,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주권자이자 만물의 창조주로서 경배를 받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4장에서 모든 것의 주권자이자 모든 것의 창조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존재했고 현재이며 앞으로 올 분, 즉 앞으로 올 분의 맥락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 행위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며 경배를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존재했고 현재이며 앞으로 올 전능하신 하나님께 빛을 쬔습니다.

즉, 4장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시작과 끝에 서 계신 분으로서 새로운 창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합니다. 창조의 시작과 끝에, 존재하셨고 오실 분은 새로운 창조 행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우리는 두루마리를 펴서 그 내용을 움직이게 하는 어린 양의 환상을 발견합니다.

제 생각에, 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 행위를 일으키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구속하는 책임을 맡으셨기 때문에 경배와 찬양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창조주이십니다. 이제, 그는 5장에서

모든 것의 구속자이시므로 이 두루마리를 취하여 봉인을 풀고 펼치는 것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창조 행위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로운 창조 행위가 시작됩니다 . 그러므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이것의 궁극적인 목표 또는 이것의 궁극적인 끝이 계시록 21장과 22장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창조가 하늘에 있는 것처럼 땅에도 도착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4장과 5장과 21장과 22장은 요한의 환상, 즉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의 창조주에 대한 환상을 위한 일종의 책받침을 제공하는데, 그는 5장에서 새로운 창조 행위를 개시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이 계시록 21장과 22장의 새 창조에서 절정에 달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저는 계시록 21장과 22장 전체를 자세히 살펴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나중에 여러 번 다루고 다른 섹션도 다룰 것이지만, 21장과 22장에서 첫 번째 창조와 새 창조, 그리고 땅의 약속, 땅의 상속으로 명확히 연결되는 몇 가지 본문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분명한 것은 21장 1절에 나오는데, 요한은 그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는데 이는 첫 번째 하늘이었고 첫 번째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없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사야 65장 17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새 하늘 과 새 땅을 창조하려 하노라. 옛것들은 잊혀질 것이며, 이제 새 하늘과 새 땅과 처음 하늘과 이미 지나간 처음 땅의 대조에 다시 주목하십시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신약 전체에서 본 모든 새 창조 언어의 정점을 봅니다. 특히 고린도후서 5:17과 같은 본문에서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가 있다. 또는 새 창조가 왔다. 2011 NIV에 따르면, 그것은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의 완성을 찾습니다. 그런 다음 나는 새 창조, 새 하늘 , 새 땅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옛것이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에 의해 시작된 새 창조는 요한이 계시록 21장에서 보는 새 창조에서 절정에 달하고 완벽한 성취를 얻습니다. 우리가 이미 강조했지만 몇 섹션 전에 창세기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보았던 한 가지를

다시 강조할 필요가 있는데, 역사가 끝난다는 것을 주목하세요.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물리적인 새 창조로 끝나며, 이는 하나님 백성의 운명이 매우 물리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Heaven Is My Home과 같은 노래를 부르고, 미국에서 최근에 나온 책 Heaven Is For Real에서 어린 소년이 천국의 환상을 보고, 우리는 모두 천국에 갇히고 천국이 어떨지,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언어에 대해 너무 많은 논쟁을 하고 싶지 않지만, 그것은 종종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지 또는 천국에 관해 생각할 때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어떻게 상상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계시록을 올바르게 읽는다면 흥미로운 점은 계시록 21장이 하나님의 백성이 물리적인 땅에 있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롭게 된 땅, 죄의 모든 영향에서 벗어났고, 지금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현존으로 주입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땅입니다.

사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 운명은 부활한 육체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한 육체는 육체적 새 창조물에서의 삶에 적합합니다. 그러므로 기술적으로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은 육체적인 새로운 창조입니다. 저는 어딘가에서 어떤 전도사가 한 번은 전형적인 전도자의 서두에 누군가가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의 대답은 '네, 갈 거예요. 하지만 오래 머물지는 않을 거예요' 였고 그는 요한 계시록 21장의 힘과 새로운 창조에 대한 성경적 신학을 이해했습니다. 우리의 최종 운명은 영적인 덧없는 존재가 아니라 육체적인 창조이며 매우 육체적이고 구체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변형된 존재, 새로워진 존재, 구속된 존재,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존재로 주입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인 존재입니다.

사실, 다시 한 번, 그것은 창세기 1장과 2장과 매우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육체적 존재가 물리적 지구에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것을 폐기하지 않고, "그것은 효과가 없었으니, 내가 그들을 나와 함께 하늘로 데려가겠습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고, 처음에 인류에 대한 자신의 의도를 가져오고, 21장과 22장이 창세기에서 발견되는 내용을 반영하여 그들을 궁극적인 목표로 이끕니다. 독일인들은 종종 그것을 Endzeit 라고 부릅니다. 호주 에르차이트(Erdzeit) , 첫 번째 시간으로서의 마지막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과 22장의 마지막 때는 첫 번째 때, 즉 창세기 1장과 2장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물리적 창조물로서 삶을 시작했듯이, 그것이 우리가 인간 존재를 발견하는 방식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새 창조물로서 사는 것으로 끝납니다. 또한 계시록 21장에서 죽음의 부족이 있는데, 우리는 죽음이 옛 창조의 일부라고 말했고, 새 창조물의 삶은 그것을 역전하고 극복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가 닦아 주겠다고 말합니다. 4절에서 그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나 애통함이나 울부짖음이나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왜? 옛 질서가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이브의 죄로 인해 죄의 영향을 받고 저주 아래 있던 첫 번째 창조물이 이제 해방되어 첫 번째 창조와 관련된 것들, 즉 죽음과 울부짖음과 애통함과 고통이 이제 새로운 창조의 생명으로 특징지어지는 새로운 창조 행위로 극복됩니다.

또한, 새 창조에는 영적 차원과 물리적 차원이 모두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물리적인 새 창조이지만,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계시다는 점에서 영적 차원도 있습니다. 그의 백성은 새 언약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21장 3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이르기를, 이제 하나님의 거처가 인간과 함께 있고, 그가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신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적 축복과 그와의 관계, 그리고 물리적으로 구속되고 새로워진 땅에서 새 언약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새 창조의 현실에 대한 또 다른 증거, 즉 21장과 22장 전체는 분명히 새 창조 행위, 새 창조의 맥락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새 땅에서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 65장과 새 창조를 기대하는 다른 구약성경 본문의 성취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6절, 잘 알려진 천년왕국 장으로 한 장만 건너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더 다룰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의 주의를 끌고 싶은 것은 새로운 창조물이 도착하기 전인 계시록 20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4절부터 시작해서 4-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왕좌들을 보았습니다. 계시록 20장 4-6절, 저는 왕좌들을 보았는데, 그 위에는 심판할 권세를 받은 자들이 앉아 있었고,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잘린 자들의 영혼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짐승이나 그의 형상을 경배하지 않았고, 이마에 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 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주의를 끌고 싶은 것은 살아나거나 부활한다는 언어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성취하는 부활입니다. 이것은 부활이며, 로마서 6장과 8장을 성취하는 궁극적인 부활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미래의 부활을 기대하는데, 그것은 새로운 창조의 궁극적인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20장에서 더 흥미로운 점은 20장이 또한 에스겔 37장을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서는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 마른 뼈들이 모여 살이 그 위에 오고, 영이 그 뼈들 속으로 들어가고, 그들은 생명을 얻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에스겔 37장을 암시하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21장과 22장이 에스겔 40-48장을 암시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 즉 생명의 영으로 회복되고 일으켜진 마른 뼈의 골짜기는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나는 것으로 성취됩니다. 특히 짐승의 손에 순교당한 자들이 이제 살아나는 것으로, 이스라엘이 땅으로 회복되고 에스겔 37장에서 생명을 얻는 성취와 그들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땅, 새 창조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로 성취된다고 생각합니다. 요한은 다시 한 번 이사야 65장에서 새 창조를 다루는 모든 구약성경 본문과 에스겔 37장에서 이스라엘이 땅으로 회복되는 것을 다루는 모든 구약성경 본문을 하나로 모읍니다.

에스겔 37장은 21장 3절에도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처가 인간과 함께 있고, 그가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며,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될 것이며, 하나님 자신이 그들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에스겔 37장에서 바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새로운 창조 본문, 땅 본문,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회복하는 것을 모아서, 이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이 새로운 땅, 새로운 지구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것으로 궁극적인 성취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창조에서 아담과 이브를 의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땅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의도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새로운 땅,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것으로 궁극적인 성취와 완성을 찾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것은 새로운 창조의 언어를 분명히 나타내는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도시의 큰 길 한가운데로 흐르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었습니다.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서 있었고, 매달 열매를 맺는 12가지 열매가 맺혔으며, 나무의 잎은 민족을 치유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읽지는 않겠지만, 이 본문은 분명히 에스겔 47장을 암시하고 있으며, 처음 12절에서 같은 내용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전 아래에서 강이 흘러나와 결국 점점 더 깊어지고 결국 사해로 흘러갑니다.

강 양쪽에 나무가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음 섹션에서 성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볼 수 있는 이유 때문에, 나중에 볼 수 있는

이유 때문에, 요한은 성전에서 강이 나오지 않고, 새 예루살렘의 중앙에 있는 보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계시록 21장에서 새 창조를 에덴 동산의 관점에서 구상하는데, 이는 그가 에스겔 47에서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겔 47장도 에덴 이미지, 에덴 동산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새 창조를 이사야 65장과 또 다른 새 창조 본문의 성취로만 묘사하지 않고, 이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의 백성을 위해 의도하신 것은 이제 새 창조에서 약속, 약속된 성취를 찾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회복되는 것에 대한 에스겔 47장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원래의 창조 행위에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의도와 그 땅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의도를 듣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에덴동산에서 궁극적인 성취를 찾고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회복되고 성취되는 새 창조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새 창조에 대한 신약의 가르침을 요약하고 그에 대한 몇 가지 의미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요약하자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원래의 창조 목표로 회복시키려는 의도로 기대되고 약속된 새 창조는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시작되었으며, 그의 백성은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합류하고, 성령의 영적 생명을 받음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역사의 끝에 물리적인 새 창조로 완성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과 22장. 다시 말하지만, 제 생각에 이스라엘이 점유했고 예수께서 1 세기에 점유하셨던 팔레스타인 땅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선물로서 전체 창조물을 포용하는 일종의 갱신과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돌아가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새 창조, 새 창조의 주제는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본래의 창조 행위를 회복하고자 의도하신 것으로 기대되고 약속되었습니다. 그 새 창조는 이제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에서 시작되었고, 그다음에는 그리스도께 속하고 그의 부활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역사의 맨 마지막에 육체적인 새 창조로 완성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창조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에 대한 몇 가지 의미를 끌어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미 언급한 내용이지만, 반복해서 말할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종종 이것을 간과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성경의 스토리라인에 따르면 우리의 운명은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켜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방식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육체적 존재, 즉 육체적이고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육체적 존재에 못지않게 육체적인 존재로, 육체적인 땅에서 육체적 몸으로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의 의도는 다른 계획이나 다른 현실을 위해 그것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계획은 우리의 몸을 새롭게 하고 지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리가 물리적 지구에 사는 물리적 존재가 되는 것이 창조부터의 신의 의도였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영적인 존재이고, 몸은 단순히 우리가 탈출하여 천국에서 살기를 바라는 용기라는 생각은 성경적 생각이 아니라 1, 2, 3세기의 영지주의적 생각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원래의 계획을 폐기하지 않으시고, 대신 모든 창조물과 그의 백성을 구속하고 새롭게 하고 회복시킴으로써 그 목표를 달성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계시록 21장과 22장은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의 궁극적인 성취로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물리적인 지구에 사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천상의 것이 아니라 지상의 것입니다. 이제 저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갸웃합니다.

저도 가끔 그 언어를 사용하지만, 우리가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벗어나는 것, 이 몸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영적 세계에서 사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계시록 4장과 5장에서 하늘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에서, 지금 하늘에 있는 보좌가 땅에 있습니다. 하지만 요점은 우리의 운명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천국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들을 때, 사람들이 그곳에 가고 싶어하지 않는 것도 당연합니다. 우리가 천국의 속담적 만화적 캐리커처를 구름이 있는 장소로 생각하고, 우리가 하얀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것이 천국이라면, 천국이 그런 곳이라면, 저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천국을 그런 식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대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읽을 때, 그것은 나에게 큰 희망을 주고, 그것이 내 운명이라면 나를 설레게 하고, 기대할 무언가를 줍니다. 그것은 이 땅이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나에게 희생하라고, 심지어 이 땅에서 고통을 겪으라고, 이 세상의 것들을 희생하라고 부르실 때, 나는 그가 여전히 나를 위해 기다리고 있는 세상이 있고, 그것을 위해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 때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나는 영적인 존재로서 하늘에서 하얀 옷을 입고 떠다니기 위해 이 땅을 희생하고 싶지는 않지만, 구원받고 새로워진 세상을 위해 이 세상을 희생하는 것은 확실히 가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생각해 보세요. 죄의 모든 영향이 벗겨진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고통이나 울음이나 죽음이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실망시킬 것이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바라는 모든 것과 갈망하는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는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계시록 21장과 22장의 신약의 새로운 창조입니다. 두 번째 함의는 지금까지 말한 것을 바탕으로 제기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땅의 약속은 단순히 영적으로 표현된 것일까요? 제가 구약을 다시 읽어보면 땅에 대한 약속은 다소 구체적이고 물리적으로 보였고, 지금 저는 땅에 대한 약속이 단순히 영적으로 표현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펴본 여러 본문에서 지금 땅에서의 안식은 그리스도를 상속받고, 구원을 상속받고, 영생을 얻는 것 등,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새로운 창조의 성취로 성취되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땅의 약속은 단순히 영적으로 표현된 것일까요? 그리고 그에 대한 제 대답은 단순히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새로운 창조에서의 땅에 대한 약속이 영적 차원과 물리적 차원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현재, 이미 시작된 새 창조에서 아마도 영적인 약속이 가장 두드러질 것입니다. 하지만 계시록 21장과 22장을 살펴보면, 아직은 아니지만, 물리적인 창조는 이 창조와 마찬가지로 물리적입니다. 그래서 새 창조의 실체, 즉 땅에 대한 약속은 영적으로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매우 물리적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21장과 22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물리적인 새 땅에 있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시 한번, 예수님 자신이 물리적인 땅, 팔레스타인 땅, 약속의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한번 땅을 상속받고, 땅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현재 의 팔레스타인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물리적 미래에 정착할 것입니다 .

제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팔레스타인 땅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신 모든 창조물로 돌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2장에서 그리스도와 새 창조 안에서 성취될 것을 가리키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그것이 더 큰 무언가의

유형으로 기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개인적으로 현재의 팔레스타인 땅에 정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언젠가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새로운 창조의 물리적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 땅에 정착할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땅이 가리키는 것은 이스라엘이 소유했던 땅과 예수께서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걸었던 땅이 결국 모든 창조물을 포함하도록 확장될 것이라는 것이었고, 이제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그 성취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저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새 창조물 안에서 살 때 그들이 땅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의도된 목표입니다.

이것은 신약 신학에 대한 그의 강의 시리즈에서 데이브 매튜슨 박사입니다 . 이것은 세션 5, 신약에서의 창조, 땅, 휴양, 2부입니다.